

서광중학교 푸른숲선도원

교정에서 내 나무를 갖고 보살펴요

2006년 식목일을 맞이하여 광주 서광중학교에서는 푸른숲선도원들이 방과후에 도서관에 모여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'교정에 있는 나무중에서 내 나무를 갖고 보살피기'라는 이름으로 1:1 결연된 교정의 내 나무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각오와 결심을 발표하였습니다. 발표가 끝난 후에는 다스한 햇살 아래 교정환경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

〈글/남선화(광주 서광중학교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)〉

◆ 나무야 나무야, 내 나무야

1-1 조용선 | 나무에게 심심풀이로 괴로움을 많이 주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많은 일을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나무를 앞으로는 잘 보살펴야겠다.

1-2 나선영 | 와! 내 나무가 생긴다.

내 나무에게 잘해줘야지.

1-6 김우현 | 내 나무도 찾고, 화단도 가꾸어

내 마음이 깨끗하고 푸르러진 느낌이다.

1-6 강래원 | 푸른숲선도원들과 협조하여 우리학교

나아가 광주를 푸르게 아름답게 가꾸어야겠다.

2-2 오한나 |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아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 것 같고 나무의 마음으로 세상과 나무를 바라보며 푸른숲선도원 조장으로 조원들의 모범이 되도록 자연보호 활동 및 환경 정화 활동에 솔선수범 해야겠다.

2-2 홍광석 | 우리 생활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나무에 좀더 관심을 갖겠다.



도서관에서 정태양(1-1)학생이 자신의 나무대해 열성적으로 설명하며 푸른숲선도원으로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활동할 것인가 결심을 다른선도원들에게 발표하는 모습



1학년 7반교실과 기술실 앞 교정에서 푸른숲 선도단장인 최진영(3-4)이 자신의 나무인 자목련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모습